

## 2014년 4월 19일 국가직 9급(해설: 신영식 교수)

### 1. 밑줄 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였다.

- ①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 ②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④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정답 : ③

해설 : “하나의 달빛이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요,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는 내용은 정조의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이다.

③ 정조 15년(1791)의 신해통공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정조 대의 신해통공 조치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조치이다.

① 금위영의 설치: 숙종 8년(1682)의 사실이다.

② 북벌의 추진: 효종 대의 사실이다.

④ 신문고 제도는 영조 때 부활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병조에서 신문고 제도를 관할하였다.

### 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왕과 관련되는 내용은?

(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중략)...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고려사』 -

- ①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③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원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괄호 안에 들어갈 왕은 ‘공민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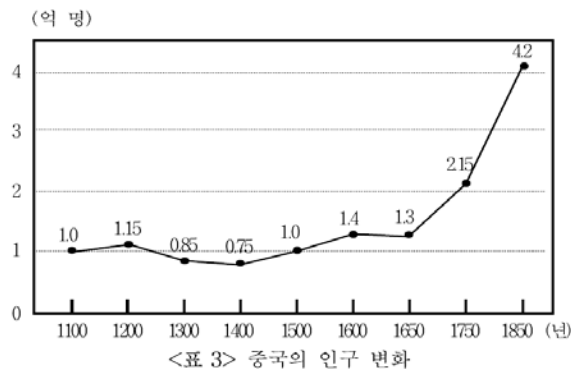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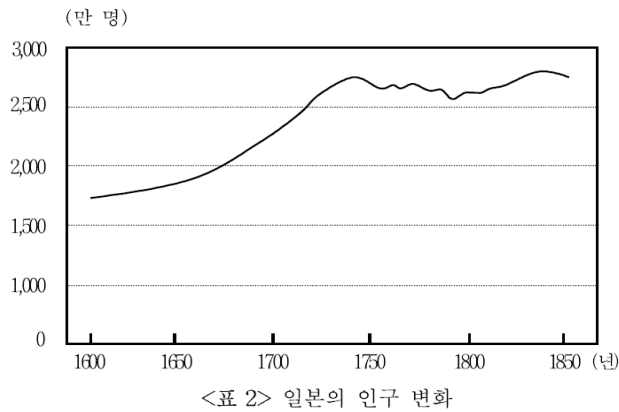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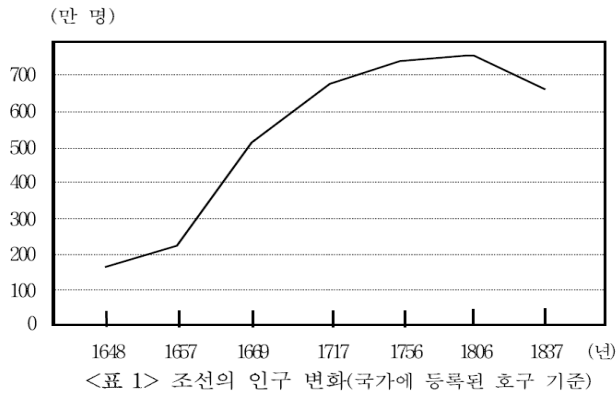
② 공민왕은 원의 내정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친원 세력의 연락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이성계·지용수로 하여금 요동의 동녕부를 공격하도록 하여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① 장례원은 조선시대 노비 소송 등의 문제를 담당하였던 관청으로,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다.

③ 『동국병감』은 고려 문종 때 김충서의 주도 하에 고조선~고려 말까지 중국과의 전쟁사를 정리한 병서이다.

④ 과전법은 우왕 때인 1391년에 실시되었다.

3. 다음은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이었다.
- ② 명대 초기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는 청대 초기 3억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중반에 4억 2천만 명에 이르렀다.
- ③ 17세기~18세기 초반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정답 : ③

해설 : ③ 17~18세기 초반의 시기는 조선을 비롯한 삼국의 농업 기술이 발달했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이전보다 농경지도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는 전국적인 수해(1820), 콜레라의 유행(1821)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다. 이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되었는데, 이때 중국의 인구는 1억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 청나라가 건국된 1644년에도 중국의 인구는 1억 5천명을 넘지 못하였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4억 2천만 명에 이르렀다.

④ 일본의 인구 분포를 보면 17세기인 1600~1699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18세기 중반(1750년)부터 정체현상을 보였다.

#### 4.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 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 ②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 ③ 윤희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정답 : ①

해설 : 조선 세종 때에는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서가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농사직설』이다.

① 세종 때 그려진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도원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

② 고려 무신 집권기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운동과 관련된 설명이다. 지눌의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여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하였다.

③ 성리학의 상대화를 시도하였던 윤희가 사문난적으로 몰린 것은 17세기의 사실이다.

④ 진경산수화는 18세기 전반, 풍속화는 18세기 후반에 유행하였다.

#### 5. 밑줄 친 ‘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움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움을 옮겼다고 한다.

— 『고려침장(高麗牒狀)』 —

- ①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 ② 최충현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정답 : ①

해설 :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가 진도에 도움을 옮겼다는 내용이나, 몽골에 저항적인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조직은 ‘삼별초’임을 알 수 있다.

① 삼별초는 최우 집권기에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야별초로 성립되었다. 이후 조직이 확대·강화되면서 좌별초·우별초로 분리되었고, 대몽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의군을 포함하여 삼별초로 조직되었다.

② 도방에 대한 설명이다. 최충현은 경대승 때 권력 강화 기구로 설치되었던 도방을 다시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고 무단 정치를 강화하였다.

③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조직된 군대로는 광군(光軍)이 있다.

④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유인우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삼별초와는 관련이 없다.

## 6.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명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 『비변사등록』 -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였다.
- ②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③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④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사료에서 “청천강 이북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보아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1811)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글을 남긴 국왕은 ‘순조(1800~1834)’이다.

② 공노비들의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공노비로부터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인 1801년에는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 이때의 공노비 해방은 각 사(司)의 공노비는 제외하고 내수사와 궁방에 소속된 노비만을 해방시킨 것으로, 법제적으로 공노비 전체를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시기는 1860년이다.

③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은 1866년 7월의 사실이다.

④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1862)가 일어난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된 것이다.

## 7.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②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 상(喪)에 유교 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권상연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 ④ 신유사옥 때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정약전이 흑산도 근해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한 것은 사실이나, 정약전은 기해박해(1839) 때가 아닌 신유박해(1801) 때 유배를 갔다.

② 『천학문답』은 안정복이 저술한 천주교 비판서로서, 서학을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정복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 사상은 유가적 척사론의 사상적 배경으로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박해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결과를 가져왔다.

③ 정조 때인 1791년에는 윤지충과 권상연에 의한 신주 소각 사건(진산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정조는 이 사건을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여 당사자만을 처형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④ 신유박해 때 황사영은 북경 주교에게 명주에 쓴 ‘백서(帑書)’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당시 조선의 천주교 교세와 포교 방안, 중국인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처형 사실, 신유박해 때 죽은 순교자들과 관련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백서가 관아에 압수됨으로써 황사영은 대역죄인이 되어 능지처사 되었다(1801).

## 8.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이항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 ③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과,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답 : ③

해설 : ③ 18세기 노론 내부에서는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으로 나누어져 인물성 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이 전개되었다. 충청도 노론 주기파인 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였고, 서울·경기 노론 주리파인 낙론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였다.

①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 신진사대부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례』를 중시하였다.

②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 극복을 위해 통치체제의 정비,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던 인물은 율곡 이이다.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하여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은 정약용이다.

## 9. 다음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세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출동시켜 시위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함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①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②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③ 세계약소민족이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④ 파리 강화회의에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정답 : ④

해설 : 제시된 자료는 1919년의 3.1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①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통치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④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인물은 신규식(1879~1922)이 아니라 김규식(1881년~1950)이다.

② 3.1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해외로 확산된 일제 치하 최대의 대규모 민족적 항일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불러 각지의 임시 정부가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인 상해 임시 정부로 통합되는 등 독립운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20년대 이후 만주지역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3.1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으로서 중국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무저항 운동 등 아시아 민족 해방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 10.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②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답 : ④

해설 : ④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후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제3차 개헌이 전개되었다.

① 5.10 총선거는 1948년의 사실로 4.19 혁명 발발 이전의 역사적 사실이다.

②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제정, 1950년 3월 시행으로 4.19 혁명 발발 이전의 역사적 사실이다.

③ 4.19 혁명 이후 장면내각에서는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 하는 등 학생과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소멸하게 되었다.

## 11.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삼국시대의 금석문은?

-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東夷寐錦)'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① 광개토왕비

② 집안고구려비

- ③ 중원고구려비
- ④ 영일냉수리비

정답 : ③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장수왕의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설명이다. 중원 고구려비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건립처에 사용할 것을 내렸다.”, “동이 매금이 늦게 돌아와 매금 국토 내의 제종인에게 절교사를 내렸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① 광개토왕비에는 고구려 건국 신화,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그리고 수요인과 관련한 기록이 담겨 있다.
- ② 집안고구려비는 고구려 시대의 비석으로 고구려 개국과 왕위 계승을 서술하였고, 수요제의 시행과 변천을 기술하였으며 호태성왕의 교시를 기술하였다.
- ④ 영일냉수리비는 신라 지증왕 대의 비석이다. 영일 지방 재산 분쟁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 12.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心性)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見性悟道)에 있었다.

- ①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 ②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 ③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④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설명은 신라 하대에 유행한 선종 불교에 대한 내용이다. ② 선종 불교는 신라 상대 말이었던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 시기에 들어왔으나 교종의 위세에 눌러 위축되었다가, 신라 하대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방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 ① 교종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의 교종 불교는 ‘왕즉불’ 사상, 업설 등을 통해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작용하였다.
- ③ 실상산파의 홍척이 흥덕왕과 같은 왕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왕실에서도 이 사상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④ 소승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백제 성왕 대 경익은 인도로 건너가 소승 불교의 계율종을 들어왔다.

## 1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①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 ② 『임하경륜』을 통해서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 ③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④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는 ‘홍대용’이다.

② 홍대용은 『임하경륜』을 저술하여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농일치의 군대를 조직할 것을 제시하는 군전제를 주장하였다.

- ① 『동국지리지』는 한백겸의 저술이며, 고증적이고 실증적인 비판이 이루어진 역사 지리서의 효시이다.
- ③ 이종회의 『동사(東史)』나 허목의 『동사(東事)』는 모두 역사서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 등을 소개한 책은 지리서이므로 관련이 없다.
- ④ 『동국지도』는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것으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1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령관에 이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 ②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버마(미얀마)전선에 참전시켰다.
- ③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을 준비하였다.
- ④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정답 : ④

해설 : ④ 조선의용군(1942.7)이 아니라 조선의용대(1938)이다.

한국광복군 산하 무장부대로 편입된 것은 조선의용대(1938) 총칭본대이다. 조선 의용대는 설립 후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와 조선 의용대 충칭 본대로 분리되었는데, 조선 의용대 충칭 본대가 1942년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1942.7) 산하 무장부대로 화북지방에서 중국 공산군(8로군)과 연합하여 항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① 한국광복군은 총사령관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을 중심으로 특수훈련을 실시하여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였다.

②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전선에서 연합작전(1943)을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문서번역, 정보수집, 포로심문, 선전전단 작성 등 심리전 활동을 담당하였다.

③ 한국광복군은 미국군과 협동작전(1944)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전략정보처(OSS) 소속으로 첩보를 위한 국내진입작전을 시도하였다.

**15. 8.15 광복 직후 결정된 정당의 중심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 ㄴ.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 ㄷ. 안재홍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 ① ㄱ. 조선인민당 ㄴ. 한국민주당 ㄷ. 한국독립당
- ② ㄱ. 조선신민당 ㄴ. 민족혁명당 ㄷ. 한국독립당
- ③ ㄱ. 조선신민당 ㄴ. 한국민주당 ㄷ. 국민당
- ④ ㄱ. 조선인민당 ㄴ. 한국민주당 ㄷ. 국민당

정답 : ④

해설 : ④ ㄱ. 조선인민당(1945.11) ㄴ. 한국민주당(1945.9) ㄷ. 국민당(1945.9)

ㄱ. 조선인민당(1945.9)은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이 고려국민동맹과 인민동지회등 군소정당등을 흡수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대중을 바탕으로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조선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을 현실적 과제로 삼았으며 좌우합작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당의 강령은 ① 조선민족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을 기함, ②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전민족의 완전광복을 기함, ③ 진보적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전 인류의 문화 향상에 공헌을 기함이라는 3개 항이다.

ㄴ. 한국민주당(1945.9)은 민족주의 우파 세력인 송진우·김성수를 중심으로 창당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의 지주와 기업가를 기반으로 하였다. 한민당은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 준비 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서 귀국할 임시 정부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조선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면서 미군정에 적극 협력하였다.

ㄷ. 국민당(1945.9)은 안재홍이 공화당, 근우동맹,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을 흡수하여 조직한 단체로 김규식을 중심으로 충칭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중도우파를 지향하였다. 민족의 대동단결을 통한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를 표방하며 활동하였고, 1947년 위원장 안재홍이 미군정 인정장관에 임명되면서 해체되었다.

· 조선신민당(1946.2)은 조선독립동맹 계열을 주축으로 광복 이후 북한 평양에서 창당된 좌익정당으로 김두봉과 백남운에 의해 창당되어 같은 해 8월 29일 북조선공산당과 합당하기까지 6개월간 존속하였다. 당 강령 및 정책기조는 친일파·반민주주의자를 제외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구축, 조선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일제와 친일파로부터 몰수한 대기업을 국영화하고 소작제를 폐지하는 등 민족경제를 재편성하고자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독립·평등·상호이익존중·우의에 기초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할 것을 밝혔다.

· 민족혁명당(1935)은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5개의 정당, 단체(의열단, 한국독립당, 신한혁명당, 조선혁명당, 광복단)등이 참여하여 난징에서 조직된 통일전선 단일정당으로 김원봉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한국독립당은 총 3개 단체가 있다.

· 한국독립당① 1930.7 북만주에서 활동. 혁신의회 중심의 이청천, 홍진등에 의해 조직된 정당. 산하에 한국독립군을 편성. 난징의 한국혁명당과 통합하여 신한독립당으로 발전하였다.

· 한국독립당② 1930.3 상해임시정부 요원들이 주도로 결성함. 한민애국단과 상해 한인청년당을 중심으로 무력을 통한 파괴, 요인암살등을 전개하였다.

· 한국독립당③ 1940.5.9. 충칭에서 단일대당으로 창당되었으며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두었다.

16.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남한        | 북한         |
|---|-----------|------------|
| ① | 제주 빌레못 유적 | 상원 검은모루 유적 |
| ② | 공주 석장리 유적 | 웅기 굴포리 유적  |
| ③ | 단양 상시리 유적 | 덕천 승리산 유적  |
| ④ | 연천 전곡리 유적 | 평양 만달리 유적  |

정답 : ②

해설 : ②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1964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남한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은 1947년 발견되어 1960~1964년에 5차례에 걸쳐 조사 발굴된 북한의 유적으로 중기 구석기부터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① 제주 빌레못 유적은 초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북한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③ 충북 단양 상시리 유적은 1981년 발굴 조사된 남한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고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유적은 1972년에 발굴된 북한의 구석기 유적이다.

④ 연천 전곡리 유적은 1978년 미군 병사에 의해 발견되어 발굴 조사가 시작된 남한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평양 만달리 유적은 1979년과 1980년에 발굴된 북한의 구석기 유적이다.

17. 통일신라시대 귀족경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이것을 폐지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한편 일정한 양의 곡식이 세조(歲租)로서 또한 주어졌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 ①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 ②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 있었다.
- ③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 ④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농민인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정답 : ④

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 ‘이것’은 녹읍이다. 통일신라 신문왕 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가 경덕왕 대 녹읍이 다시 부활하였다. 녹읍은 수급자에게 수조권과 함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① 삼국시대부터 이미 관념적으로 ‘모든 국토는 왕의 것’이라는 왕토 사상이 등장하였다.

③ 녹읍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것이다. 육두품에게 특별히 지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은 식읍이다.

④ 촌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토지는 마전이다. 양인농민의 의미의 백정은 고려 시대 때 개념이다.

18. 다음과 같은 풍속이 행해진 국가의 사회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들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혼의 실례를 보여준다.
- ②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 ③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 ④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국왕이 중국식 혼인 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 제시된 사료는 고구려의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통일신라 대 사실로 김흠운은 자신의 딸은 신문왕의 비가 되었다. 김흠운은 김흠돌의 동생이다.

①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왕이다. 고국천왕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 둘째가 발기이며 셋째가 산상왕인 이모이다. 고국천왕의 비인 우씨는 고국천왕 사후 발기를 찾아갔으나 발기가 거부하여 다시 산상왕에게 찾아가서 서로 결탁하여 산상왕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는 고구려 초기의 결혼 풍습이었던 형사취수제의 모습이다.

② 고구려 태조왕 대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되면서 연나부(절노부)는 왕비족으로 확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③ 고구려 동천왕 대 사실이다.

## 19. 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

②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었다.

③ 실형주의(實刑主義)보다는 배상제(賠償制)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

④ 기본적으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의 4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답 : ①

해설 : ① 고려에서는 기본법으로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랐다. 또한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법률을 조목별로 적은 글)을 만들기도 하였다.

② 고려시대에는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③ 고려시대에 동(銅)을 납부하고 처벌을 면제받는 수속법(收贖法)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의 법률은 실형주의(實刑主義)에 우위를 두었다.

④ 고려시대의 형벌은 태·장·도·유·사의 5종이 시행되었다.

## 20. 고려시대에는 귀족·양반과 일반 양민 사이에 ‘중간계층’ 또는 ‘중류층’이라 불리는 신분층이 존재하였다. 이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는 내료직(內僚職)이다.

②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③ 서리는 중앙의 각 사(司)에서 기록이나 문부(文簿)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하였다.

④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

정답 : ④

해설 : ④ 고려시대 상층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서 통훈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 문벌귀족에 비해 차등이 없었다.

① 고려시대 중류층인 남반(南班)은 궁궐에서 숙직하고 국왕을 시종하며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맡는 내료(內僚)였다.

② 고려시대 중류층에는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도 속하였다.

③ 고려시대 중류층에 속하였던 서리는 중앙 관청의 말단으로서, 중앙의 각 사(司)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